

분단 65년... 마침내 다시 만난 북한 전통 사찰의 진면목!

2011.6
최신간!!



전 10권
Traditional Temple
in North Korea
北韓傳統寺刹

북한의
전통사찰

북한의 전통사찰

남북한 불교 문화 교류 사업이 맺은 최대의 결실!
북한 관련 출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대도감

남한에서 만날 수 없는 북한의 전통 사찰과 불교 문화재의
진수를 만나보십시오.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 불교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되살렸습니다.

北韓傳統寺刹
Traditional Temple in North Korea



전 10권 | 2,800여 페이지 | 울컬러 대형 화보 3,500여 컷 | 타블로이드판형(250×350mm) | 각권 150,000원(전집 1,500,000원)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불교만큼 큰 기여를 한 종교는 없습니다. 1,7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기본 정신이 되었고, 모든 민중의 삶을 지탱하고 일으켜 세우는 정신적 지주였으며,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난극복의 선봉이 되었고,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는 부처님의 너른 품으로 자비롭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세계 속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빼어난 국보와 보물의 대부분 역시 불교의 유산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천리 방방곡곡 그 법음을 떨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갈라진 북한 지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금강산과 묘향산 등의 지역에는 남녘과 견줄만한 대찰과 선사들이 즐비하였으니, 이념에 따라 남북이 나뉘고 북한 지역에서 불교가 쇠락한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벌써 6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불교와 남한의 불교가 다르고, 남과 북의 불교문화유산이 다르다는 인식마저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듯이 남과 북의 불교는 언제나 둘이 아닌 하나였으며 문화유산 역시 결코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분단 65년을 지나면서 부처님의 가피로 크나큰 원력 하나를 회향하기에 이르렀으니, 북한 전역에 산재한 전통사찰들의 모습을 세밀한 부분까지 사진에 담아 도록으로 펴내게 된 것입니다. 불자들의 기쁨을 넘어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번에 발간하는 도록에 실린 사진들은 북한의 문화보존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년여에 걸쳐 북쪽 전역에 남아 있는 59개의 전통사찰과 암자를 촬영한 것을 제3국을 통해 입수한 것입니다. 그동안 남쪽에 소개된 북한 사찰의 모습은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의 유

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1), 『조선의 절 안내』(조선문화보존사, 2003)에 실려 있는 것으로 대부분 1990년대에 촬영되었습니다. 일부 북한 방문자들이 평양의 광법사, 법운암, 묘향산 보현사, 개성 관음사 등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크게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록은 북한의 전통사찰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각, 불화, 불상, 단청, 비석 등 사찰의 모든 구조물을 세밀하게 촬영한 도록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외에 장안사터, 화장사터, 마하연터, 학림사터, 현화사터, 신평사터 등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결과 불신으로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고통의 역사를 화합과 평화, 통일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0년에 창립한 조계종의 산하기관입니다. 그동안 남북불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 불교 교류 추진, 연구 조사를 통한 종단의 통일 정책 수립, 북한 동포 돕기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 공동 행사 및 연대 사업 참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올해 주요 사업을 남북 불교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불교계 통일 활동의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종단의 5대 결사, 특히 평화 결사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전통사찰 도록은 북한 전통사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남북 불교 교류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커다란 결실을 이천만 불자와 국민, 그리고 문화예술계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승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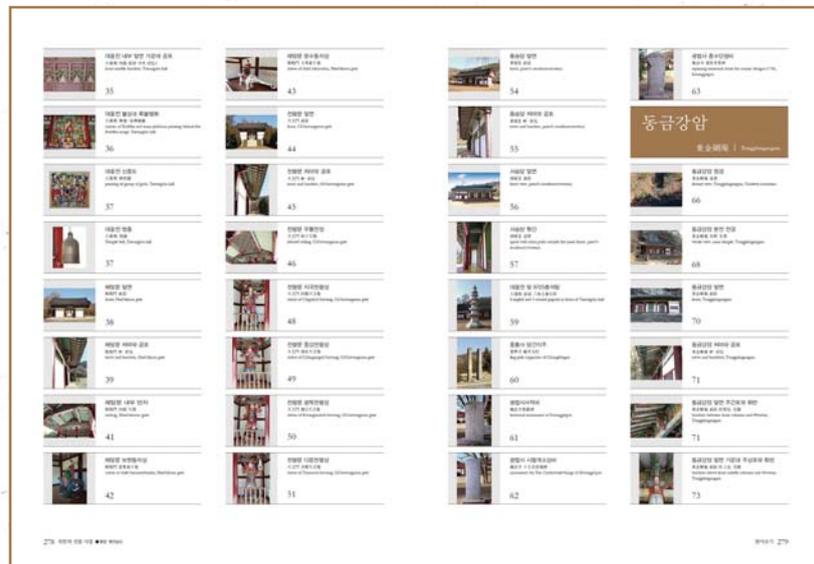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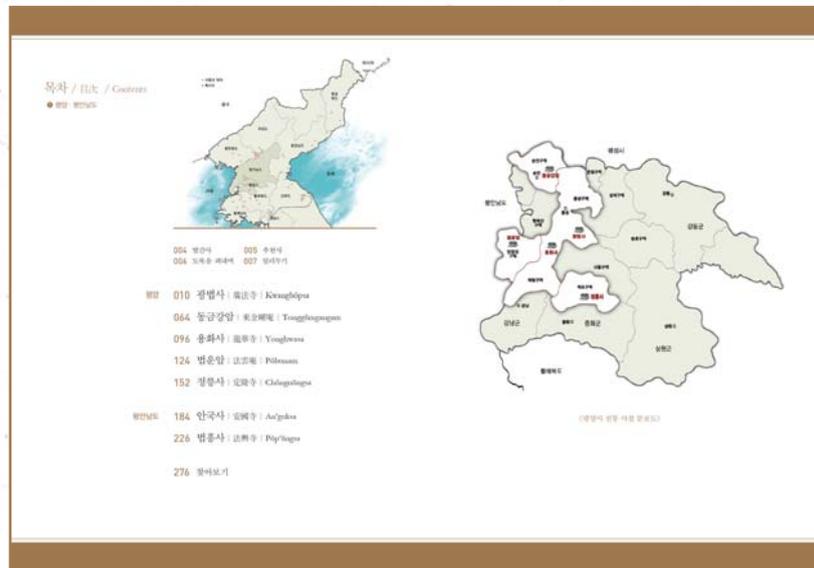
갈 수 없는 그곳, 북한의 사찰을 사진으로 만나다

“북한 전통사찰의 현재성과 현장성, 자료성에 비중을 두고 편집”

59개 전통 사찰과 6개 폐사지 / 총 3,500여 컷의 최근 촬영 사진

총 2,800여 페이지의 대형 기획 / 250×350mm 초대형 판형 / 사철 양장을 통한 보존성 강화 제본

상세한 한글, 한자, 영문 설명 / 썸네일을 통한 상세 색인 수록



5도 인쇄로 최고급 디자인 구현

타블로이드판(250×350mm)

각 사찰의 현재 모습을 원경으로 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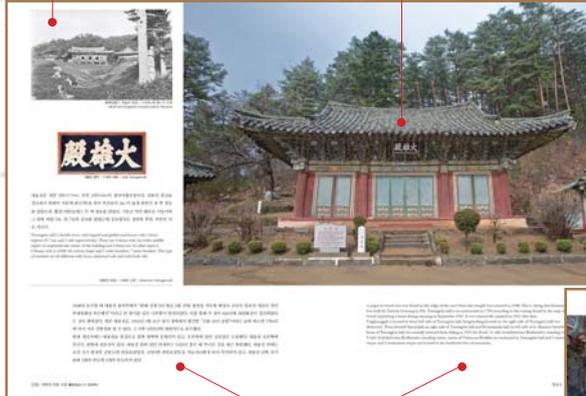
각 사찰의 상세 연혁 소개

일제 강점기 등 전쟁 이전의 모습을 제시
현재의 주요 전각 확대 사진



각 사찰의 위치 표기

세부 문화재 근접 촬영



각 사찰에 대한 세부설명(영문 설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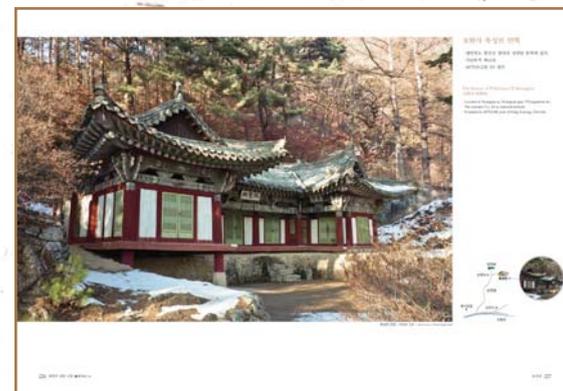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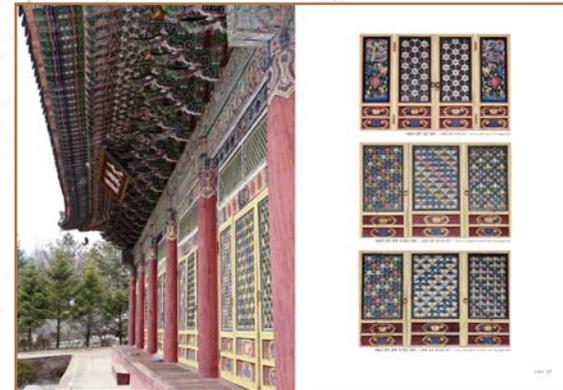


외국인을 위한 한자, 영문 캡션 병기

세밀한 부분까지 상세히 촬영한 근접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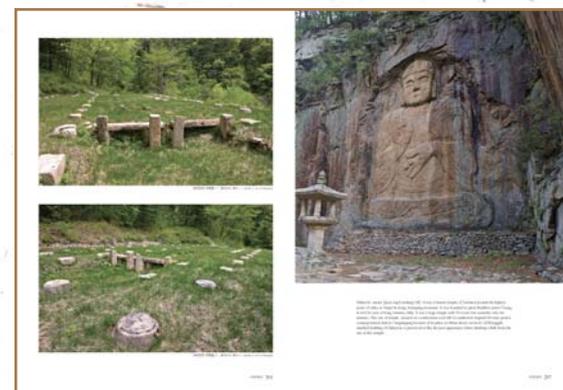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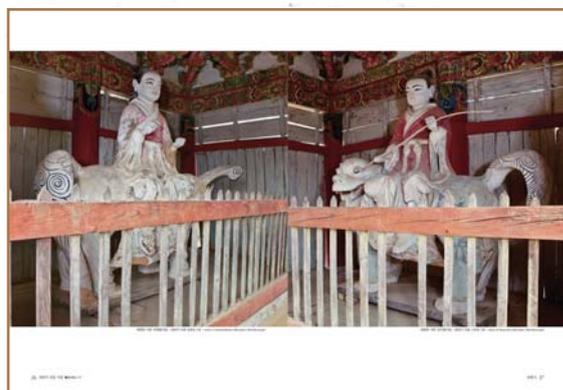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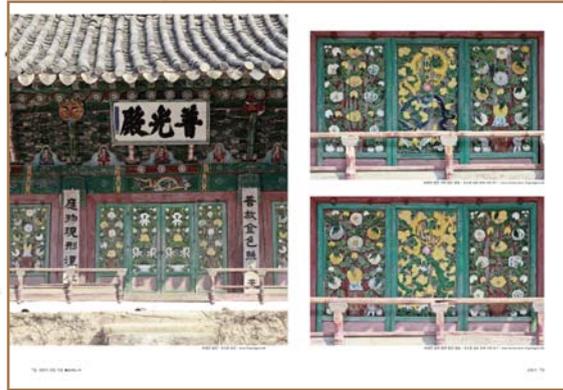
북한지정 300여개 국보유적 중 불교문화재 60여개

“전각, 불상, 단청, 석탑, 비석 등 사찰의 모든 구조를 총망라”



서산대사 흔적 어린 묘향산 법왕대 · 천선대 첫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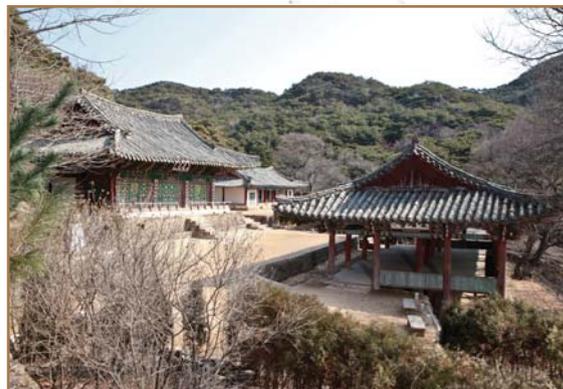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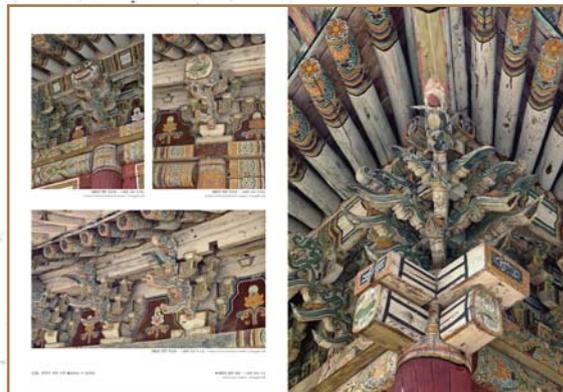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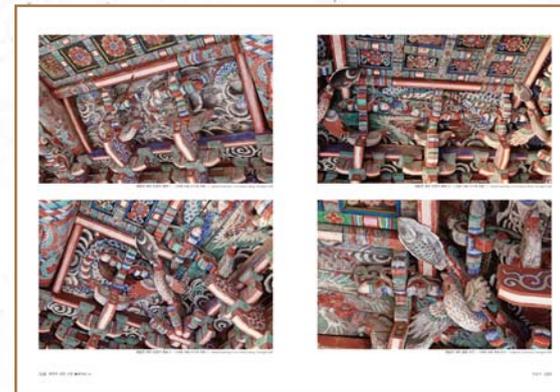
“암자와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서산대사)



원형을 간직한 북한의 전통 사찰 생생하게 담아 “반쪽이 아닌 온전한 불교미술사를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Traditional Temple
in North Korea
北韓傳統寺刹

북한의
전통사찰



오늘의 북한 전통사찰 있는 그대로 담은 최초의 종합보고서

한겨레신문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가 최근 펴내 공개한 10권짜리 도록 <북한의 전통사찰>(양자재)은 분단의 세월에 가려진 북한 각지 사찰과 절터 65곳에 깃든 불교 문화재들의 생생한 현재 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북쪽 사찰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사라졌다고 보기 쉽지만, 도록의 도판들은 적지 않은 북한 사찰이 남한에선 보기 드문 조선시대~일제 강점기 옛 모습을 지닌 채 보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사찰의 불교미술사, 고건축 연구에 충실한 기본 자료가 확보됐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조선일보 | “이 도록은 기존 자료를 모은 것이 아니라 북한 담당 기관인 조선문화보존사의 협조를 받아 직접 촬영한 자료로, 특히 전각, 불상, 불화, 단청, 석탑, 비석 등 사찰의 모든 구조물을 세밀하게 촬영해 눈길을 끈다. 국내 불교 미술 및 건축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마친, 북한 불교 연구에 중대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자료다.”

한국일보 | “북한 지역 전통사찰의 오늘을 담은 최초의 종합보고서다. 이번 도록은 최신 화보일 뿐 아니라 전각 불화 불상 단청 비석 등 사찰의 모든 구조물을 세밀하게 찍어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기존 자료는 대응보전이나 탐이 대부분이었다.”

문화일보 | “양화사 금동여래좌상(평안북도 태천) 이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불상의 신체 비례, 이목구비의 인상, 대의 처리 등에서 볼 때 14세기 중반에 제작된 작품이다. 이밖에 평남 평원 법흥사 등지에 고려후기에 제작된 불상들이 남아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고려후기인 14세기 중반 충남지역의 불상 양식을 대표할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이번 북한 전통사찰의 불교 조각이 공개되면서 개성을 중심으로 서해안을 따라 다수의 금동여래좌상이나 금동보살좌상이 제작되었음을 처음 확인하게 됐다.”



SBS | “조계종이 편찬한 북한의 전통사찰에 대한 총 10권의 도록에는 59개 사찰과 암자등을 촬영한 사진 3500여컷이 실렸으며 이중엔 100여점의 보물급 문화재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내에는 드문 것으로 알려진 고려시대 불상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 “이번 북한 전통사찰 도록은 무엇보다 분량이 방대하다. 종전 이에 대한 자료는 조선총독부가 발간 한 것 외에 북한에서 각각 출간한 《조선의 유적유물도감》(2001)과 《조선의 절 안내》(조선문화보존사, 2003)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나마 이에 수록된 사진은 대부분 1990년대 촬영된 것이며 정보 또한 대응전이나 탐과 같은 건축물 소개에 치중했다. 그러나 이번 도록은 총 2천800여 쪽에 이르며 북한이 전통사찰이라고 보고한 59개 사찰과 암자, 그리고 6개 폐사지에 대한 자료도 최근에 촬영한 원색 도판 3천 500여 컷으로 소개했다.”



남북한 불교 문화 교류 사업이 맺은 최대의 결실! 북 관련 출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대도감



불교신문 | “남북 분단 이후 남측에서 접할 수 없었던 북한에 있는 전통사찰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도록이 발간됐다. 특히 장안사터와 화장사터, 마하연터, 학림사터와 현화사터, 신평사터 등 사찰터 6곳은 사진으로는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불교닷컴 | “〈북한의 전통사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황뿐이 아니라 전통사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함경북도 개심사의 경우 1990년대 이전 사진에서는 심검당 건물이 있었지만 이번 촬영에서는 터만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

불교포커스 | “기존의 북한 사찰 도록이 사찰의 전경과 전각을 중심으로 담겼던 데 반해 이번에 펴낸 '북한의 전통사찰'에는 사찰의 전각과 탑비, 불상과 단청, 단집 등 세밀한 부분까지 상세히 근접 촬영해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각권 150,000원(전질 1,500,000원)

전 10권 | 2,800여 페이지 | 울컥러 대형 화보 3,500여 컷 | 타블로이드판형(250×350mm)

- 제1권 평양·평안남도**
광법사 | 동금강암 | 용화사 | 법운암 | 정릉사 | 안국사 | 법흥사
- 제2권 평안북도^(A)**
보현사 | 금강암 | 계조암 | 능인암 | 불영암
축성전 | 하비로암
- 제3권 평안북도^(B)**
상원암 | 화강암 | 심원사 | 서운사 | 금광사
- 제4권 평안북도^(C)**
양화사 | 용문사 | 만년사 | 천주사
- 제5권 개성**
관음사 | 대흥사 | 안화사 | 영통사 | 화장사터 | 현화사터

- 제6권 황해남도**
강서사 | 고정사 | 송월암 | 현암 | 월정사 | 자혜사 | 학림사터 | 신평사터
- 제7권 황해북도**
귀진사 | 속명사 | 성불사 | 심원사
- 제8권 자강도·함경남도^(A)**
원명사 | 만수암 | 금성대 | 법왕대 | 동덕사 | 정광사 | 광제사
- 제9권 함경남도^(A)·함경북도**
용흥사 | 불지암 | 안불사 | 양천사 | 개심사 | 쌍계사
- 제10권 강원도**
영추암 | 명적사 | 석왕사 | 표훈사 | 보덕암 | 정양사
신계사 | 불지암 | 삼불암 | 장안사터 | 마하연터